기획좌담

전환기 맞는 대학과 대학인의 자세

역사의 부름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본 좌담은 우리사회의 발전과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볼 수 있는 대학사회를 진단하고 대학인의 역할을 정립해 보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좌담이 대학교육과 학문발전에 대한 고민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註〉

▲일시: 12월18일 오후 1시
▲장소: 본사 회의실
▲참석자:
신용철(문리대교수·사학)
강병서(정경대교수·경영학)
유영학(대학원 박사과정·정치학)
이정재(정치외교학과 3년)
▲사회: 전만환 記者
▲기록·정리: 오은희 記者

-사회: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 우리 사회는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사회·정치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대학과 대학인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고 앞으로 대학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전환기를 맞는 대학의 전반적 점검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신: '전환기'라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적용되지만 8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오는 최근 몇년은 시대적 상황으로 보아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80년대에는 학생들이 사회의 민주화에 앞장서왔으며, 지금 90년대에는 국제정세, 통일등의 상황이 희망적인 반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됨으로써 교수·학생들의 연구의 질적 향상과 학문발전이 시급한 요구입니다.

▲강: 그런데, 현 우리 대학은 너무 정치화가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환기'라는 것도 모든 분야의 정치화가 비정치화가 되는 것으로 이해되었으면 합니다. 국가의 구성요소중 정치가 90% 이상 차지하는 현실은 무리가 있습니다. 전반적 사회분위기로 인한 정치화에 휩쓸리지 않고 다양한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적 환경이라든지, 학문하는 학생의 불성실한 태도, 교수들의 나태로 인해 연구의 맥이 끊겨가고 있습니다.

▲유: 저는 정치가 단지 권력쟁탈의 부정적인 측면뿐 아니라, 공동체를 형성, 유지시켜 끌고나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환기를 맞으면서 야기되었던 80년대 연구의 성향이 사회 전반에 관한 문제의 제기였다면 90년대 연구는 그 제기된 문제를 정의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기라 생각됩니다. 흔히, 대학사회를 가장 진보적인 세력들의 집단으로 알고 있지만, 대학사회야말로 가장 보수적 이론과 진보적 이론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그 사회의 축소판일 것입니다.

이제 대학은 80년대 처럼 사회와 똑같은 방식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이론이라는 무기로 사회의 질서를 가장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곳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도 사회변혁에 대한 열정으로 학문에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암담했던 80년대는 수업보다 집회를 사수하는 것이 중요했을지 모릅니다. 더욱이 87년 6월에는 교수님들도 결강을 인정할만큼 중요했으니까요. 또 이 땅의 열사들이 사회와 대학의 민주화에 적지않게 기여하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신 용 철〉

대학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교수와 학생이 합심하여 학문으로 경쟁해야 한다

▲신: 사회 전반적으로 정치가 거론되고 주목되어지는 것은 우리 역사과정에서부터 그만큼 비중이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와 대학은 문(門)이 없는 문(門)의 관계로 서로 너무 밀착되어도 멀어도 안될 것입니다. 공자가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허망하고 또,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위태하다'고 말했듯이 여기에서 배우는 것을 연구라 하고 생각하는 것을 이데올로기라고 한다면 연구와 이데올로기,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회: 제가 알기로 신교수님께서는 독일에서 교환교수로 활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신: 제가 있을 당시인 70년대 독일대학은 학생운동이 한창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 정문현관에 '생동하는 정신'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아마 그 문구가 대학 학문의 중추적 역할로 대학을 이끌어 나간 것 같습니다. 통일문제만 해도 정치학, 역사학등의 이런 학문적 성과가 대중의 의식에 투여되어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대학 구조는 중앙집권적이 아닌 분권적 구조로 되어 있어 각 과마다 독자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대학교육의 검토 과정에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학의 위상에 대해서는 모두 공유하는 듯 합니다. 그러면 학문을 위한 제반 연구시설이나 활동·구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 지금 우리대학의 연구구조는 1인 체제로 인해 장기적으로 경직되어 있습니다. 대학이 학문적인 변화 또는 구조적인 민주화에 대해 안일하고 둔감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학생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관리하는데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개인적 연구가 시간이나 자원문제에서 어려운만큼 소규모 팀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타 일반 연구소나 기업에서 운영하는 [illegible]와 경쟁할 수 있는 자생[illegible] 가져야 합니다. 또한 학문[illegible]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과, 예를 들면 경영과와 정외과가 서로 학문적 교류를 하는 능력을 가져야겠습니다.

▲신: 조직의 경직성문제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가령 이번에 대학원내에서 연구 써클 지원금이 확정되었습니다만, 이런 대학원장의 활발한 연구활동의 의지가 저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어차피 돌아갈테니 조금씩이나마 공평하게 갖자라는 나누어 먹기식의 의식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연구소 또한 시스템, 공간, 재정문제로 힘든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학부, 대학원, 교수가 외국, 외부 대학과 연결되어 연구의 맥을 이어야 합니다. 요즘들어 중공·유럽등의 개방 물결에 저 자신과 우리학교가 얼마나 학문적으로 기여했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현재 수교중인 베트남, 소련, 중공등에 대한 학문적 성과가 너무 미비합니다. 학문하는 사람이 모든 국제사회 변화를 보는 올바른 시각도 기본적으로 학문의 폐쇄성을 뛰어넘는 연구소 활동의 재생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사회: 교수님들께서 우리학교 연구 부문의 관리체계와 부설연구소의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 연구소는 교수님 뿐 아니라 대학원생·학부생이 공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학원생과 학부생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유: 이전에는 연구한 외국과 서구라파 이론들을 그대로 한국사회에 끼워 맞추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스스로 자생적 이론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나 국내에 남아있는 교수님, 대학원생 학부생이 연구한 이론을 서로 절충하는 연계과정에서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소 뿐만 아니라 대학원생과 학부생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학회가 활성화되어야 겠습니다. 사학과, 생물과등 일부 과의 경우는 학회가 잘 진행되고 있는 듯합니다. 학회라는 것이 학부생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학원생이 지도할 수 있는 소규모의 단위를 이루어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같이 공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수님들이 참여하는 방식이라면 교수, 학부생, 대학원생의 삼자 연계관계가 기존보다는 훨씬 견고해질 것입니다. 또한 서로의 신뢰관계도 한층 더 두터워질 것입니다.

▲이: 대학원 선배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학회를 통해 교수님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그리고 우리 학부생이 연계해 나가 학문의 성과를 하나하나 축적해 나가고 이 속에서 우리 사회 변혁에 대한 이론을 올바르게 규명해 나간다든지, 사회성격이나 우리 학문이 지향점을 찾는 것은 큰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교수님들의 대외 세미나에 우리 학우들의 동원되는, 즉 교수님들의 연구성과나 세미나 주제에 대한 이해도 없이 막연히 듣기만 하는 형태의 폐단은 학회의 활성화를 통해 없어지리라 생각됩니다. 교수님께서도 제자가 고민하는 학문을 분석해 내어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한 강의내용과 접맥되는 일상적 학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학회도 이젠 몇몇 소수의 연구단체가 아니라 대학원생들의 교우와 교수님들의 지도가 결실을 맺어 학회대로의 학문성과를 남겨나가고, 이후에 사회를 과학적으로 보는 시각을 심어주셨으면 합니다.

▲유: 학회의 활성화와 더불어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런 제도나 구조개선에 앞서 의식풍토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대학원 제도가 꽤 좋아지긴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은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우리 학교의 경우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는 많아도 석사과정을 마치고 학교에 그대로 남아 박사과정을 밟는 경우는 드뭅니다. 우수한 인력들은 더이상 본교에 남아있지 않고 유학가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외국저널과 외국에서 출판되는 서적을 다 볼 수 있는데도 우수한 인력을 외국에서 학위를 받아와야만 인정받는다는 고정관념이 개선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내에서도 우수한 인력은 외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남게하여 같이 공부를 하게 해야만 '경희학파'의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원 교육은 석사과정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문의 추진세력이라 할 수 있는 박사과정을 육성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박사과정의 사람들이 연구에 전념할 연구원을 갖춘 연구소가 하나도 없다는 것도 우리의 현 실정입니다. 그것이 재정문제에 기인한다면 연구소가 용역을 받거나, 외부연구의 프로젝트를 따면 얼마든지 연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원생들이 학교 연구원에 머물렀다가 일정기간 외국에 나가 공부를 해오면 그들도 한국사회에 적합한 이론을 충분히 만들어 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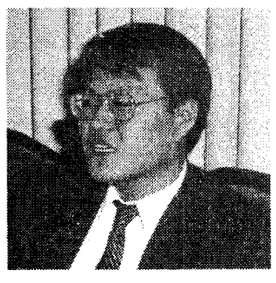
-사회: 이제까지 교육구조, 제도, 연구소, 학회의 비판과 더불어 그에 부합하는 위상을 정립해 보았습니다. 반면 우리학교의 교육풍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 지난번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각하고 결석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그 이유를 물었더니 학생들은 현 대학 교육의 문제점을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대학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교수, 학생모두인 것입니다. 교육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그 해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 물론 저희 학생들이 수업을 중히 여기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교수님들에게도 권위의식이 잔존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의내용의 다양성 면에서 커리큘럼이 천편일률적인 면과 또한 강의 내용도 10년전 노트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시대를 앞서지 못하고 방향성을 제시못하는 낡은 이론을 통해서는 교수와 학생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학점에 연연해하고, 교수님에게 학문적 연구로 도전하고자 하는 열망의 부재와 강의에 따라가는 수동적 자세는 학생들이 관심있는 학문분야의 고려, 서로 양보하여 학문적 성과를 남기는 커리큘럼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교수·학생이 변화해서 상호가치가 의식적으로 투여되지 않는 한 고쳐나가기 힘들것 같습니다.

▲신: 아침에 버스에서 내려 휘경동을 돌아올 때면 전철에서 막 내려 강의를 받으러 가는 학생들을 보며 가슴 뭉클해 합니다. 강의를 들어 갈때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전해줄까'라는 생각에 흥분하다가도 강의를 마치고 나올때 허탈해 하는 것은 아마 계속될 것 같습니다. 강의내용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주로 외우는 공부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에게 강의시간에 주제별로 발표하는 기회를 주어 학생과 교수가 발표, 세미나를 통해 학문적 교류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만 학생측의 주어진 발표내용을 제대로 준비해오지 않는 무성의와 자료가 되는 책의 부족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물론 커리조정 문제등의 구조적 소산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데 교수와 학생이 합심하여 학문으로 경쟁해 나가는 길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교수에게도 개인적 사변적인 사회문제로 연구활동에 지장을 받고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학문의 절차를 밟지않은 교수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 우리가 교수인만큼 우선은 교수가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교수자질의 향상을 기하는 한편 학생의 강의시간 결손, 학생들의 학점까지도 책임을 느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유 영 학〉

박사과정에서 조차 연구에 전념할 연구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실정

-사회: 네, 학내 교육풍토와 더불어 교수, 학생이 갖추어야 할 자세도 어느정도 정리된 듯 합니다. 그럼 앞으로 대학교육의 내용과 나아갈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 이제 강의도 사회문제를 총체적으로 분석·연구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시각들을 교정하고 지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일단 강의 첫 시간에는 우리나라, 세계정세등을 이야기하고 그 과목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런 추세로 볼때 현대사에 대한 학문 연구가 요구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강의 내용도 지도나 슬라이드를 사용해서라도 실증적인 고찰이 어느정도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보다 앞서 다양하게 교과목을 증폭시켜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한 보수와 혁신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겠습니다.

▲강: 그리고, 우리 교육 현실은 학생은 학생에게, 교수는 교수 자신에게 촛점을 맞추었으면 합니다. 서로의 모습을 보고 상대방을 질시하기 보다는 자신의 문제로 적용시켜 앞으로의 자신의 방향성을 제시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수도 관료적 의식을 개선하고 학생은 학문적으로 교수에게 압력을 가했으면 합니다. 경영학을 연구하다 보면 최근 대기업은 수직적 관계에서 소규모팀을 단위로 한 수평적 관계로 이루어져 갑니다. 이제 대학도 위에서 아래로의 구조가 기업에서 이루어지듯 수평적 관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런 관계에서 자생적 연구도 가능하고 거기에 따른 전체적 연계도 가능할 것입니다.

-사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학의 위상이 올바르게 정립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교육주체가 진취적 학풍 조성에 주력할 시기
시대적 요구 부응위해 교육구조 개선해야
석사·박사 과정의 안정적 연구위한 지원 시급

〈강 병 서〉

교수는 관료적 의식을 개선하고 학생은 학문적으도 교수에게 압력을 가해야…

〈이 정 재〉

대학원생과 학부생이 연계해 학문적 성과를 쌓고 이를 토대로 변혁 이론을 규명해야 바람직

프랑스語
1·2월학기개강
·개 강 : 91. 1. 3(木)
·등록접수 : 90. 12. 13(木)부터
·방학특강반 개설
alliance française
MÉTHODES
Adolescents-Adultes
MÉTHODE AUDIO-VISUELLE
MÉTHODE TÉLÉVISUELLE
Nouveau/Différent/Actuel
일리앙스 프랑세즈
·rauger Ⅰ, Ⅱ sans fron. Ⅰ, Ⅱ, Ⅲ
·archipel Ⅰ, Ⅱ, Ⅲ, bonne route Ⅰ
·avec plaisir, france act. VIDEO
·traduction, theme. 문법총정리반
·방학특강반 : M I·II, BRNSFIAP
·conversation libre. 시사메나이반
seoul-centre ☎755-4972, 5702 중구
nam-seoul ☎555-1125, 1126 강남
PUSAN: 622-3601 KWANGJU: 526-0189
TAEGU: 22-4630 DAEJON: 254-3478
alliance française
財團法人 韓佛文化財團
(일리앙스 프랑세즈)

그 유명한 "광화문 영어학교"
이 나라에서 맨 처음으로 한학급에 열명 안팎의 학생만을 등록시키고 영어 공부를 제대로 시켜온 학원에 나가 영어 회화 졸업을 하기로 작정하신 분이라면 외면 할 수 없는 곳.
선생은 모두 자격있는 서양 사람이요, 학생은 모두 사귀어 둘만한 여러 계층의 남자와 여자들인 곳.
들어가기 좀 힘들지만, 허겁지겁 와서 보채지 말고 좀 미리연락하면 순서와 영어 수준에따라 공평하게 입학시켜 주는 곳.
잇속 때문에 학급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 재단의 연구사업으로 한국인에게 영어를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
서울시내의 국민학교 영어 담당 교사에게 영어 회화를 가르치는 곳.
제115기 수강생모집
●개 강 : 1991. 1. 7(8주)
●강 사 : NATIVE SPEAKER
●강의시간 : 1일 75분 주 5일
●반 편 성 : 8~13명씩 7단계
·미국·영국 개별 어학연수 상담
재단법인 언어교육 부설
언어교육 학원
language teaching research center
코리아나호텔뒤 737-4641 대

프로그램 개발
동문의 이름으로 책임지고 신용과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주변기기 소모품
이제는 386입니다.
IBM AT/386
황금의 선물
*24핀 80칼럼 35만원
*24핀 136칼럼 45만원
J.C.Computer System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16-1(선인전자상가 22동 2층 22호)
TEL. 713-6919, 713-6918, 701-2763
FAX. 701-2763

柳津 監修
酒井善孝 編著
宋承鎬 譯著
碩博 大學院 大學入 留學 高考試 就職
英作英文法演習 1200題 眞本英文解釋演習 1200題
390Page 5,000원 700Page 6,400원
本書의 內容
SIX PART
영문국역/내용파악/선택문제/완성문제/어휘문제/종합문제
●기본문제-A ★ 大入
●표준문제-B ★★ 考試
●난제문제-C ★★★ 碩博
영어의 독해 발췌·문법·작문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에서 세심하고 과학적 분석으로 어떤 난해한 시험에 무딪치도 해결할 수 있는 영어의 급소를 찔는 입체적인 훈련서
●이名著를 讀破하시오!
■1. 200題 완결본 2,800원
■1. 200題 단어숙어 1,400원
百萬社 266-8304
서울 종로 6 가 267

ADVANCED ENGLISH LANGUAGE PROGRAM
by Dr. William Maxwell, Ed.D., Harvard
Dr. William Maxwell
Harvard대학에서 교육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고 Oxford대학에서 영어교육학을 연구했으며 California대학교 사범대학 학장을 역임한 William Maxwell박사가 12월 3일부터 당학원에서 최상급 과정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Maxwell박사의 과정을 수강하기 희망하시는 분은 당학원 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외국어연수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2
(백상빌딩 1006호)
전화 : 785-1749·0919, 780-2817

외국어 교육, 최고의 자부심
파고다외국어학원
"외국어 학습 성공자중에 외국어 정복에 대한 어느 비이수를 구하면, "세대로 외국어 배우려면 파고다 외국어학원에 다녀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 특히 지식인 층에서 이것은 바쁜 시간을 쪼개어 학원을 찾는 수강생들에게 하루하루 성취감을 주자는 파고다학원의 모토가 강의시간 시간마다 신시하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강 첫날, 최고의 교수진이 펼치는 명쾌한 강의가 외국어 정복의 자신감을 준다."
종로2가 파고다공원 건너편 흰빌딩
274-4000,274-6821~2
I CAN DO